

한강 야시장 장소이전·축소 위기에 시의회 “대중성 고려해 재검토해야”

야시장 세종로공원 이전 예정에
인지도, 시민 수요 등 고려해야
한강 야경 사업 연계 등 유지 제안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공원에서 운영했던 야시장의 개최 장소를 내년에 세종로공원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대중성을 감안해 한강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의회는 글로벌 패션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패션로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3~12월 서울시는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을 진행한다. 이전과 다른 점은 2024년부터는 야시장 여는 장소를 한강공원에서 세종로공원(종로구 세종대로 189)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시가 ‘한강공원 야시장’을 ‘광화문 푸드마켓’으로 바꿔 운영하고 참여 상인을 75개팀에서 10개팀 수준으로 줄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지난 2015년 ‘서울야시장’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먹거리와 아이디어



한강 달빛 야시장 운영 모습.

/서울시

상품을 사고파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열었다. 금년엔 12회 개최됐으며, 60만명이 다녀가 19억3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 야시장에 참여한 상인 규모는 각각 152개팀, 170개팀이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강공원 야시장은 주말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 행사 이후 발생한 쓰레기 처리, 인접 화장실 부족 문제 등 야시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 발생으로 내년부터 장소를 이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야시장 사업 예산은 올해(18억8950만6000원) 대비 22.2% 감액된 14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장기간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온 야시장 개최지를 한강공원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 한강 야시장의 인지도와 시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한강 달빛야시장은 여전히 많은 시민이 찾는 행사이며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으므로, 사업의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광화문 앞 세종로공원과 함께 서울 대표명소 곳곳에서 운영되는 야시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강의 야경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편성된 바, 연계해 운영 가능한 한강공원 야시장 사업의 유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위험 3배… 보호 시급

서울시교육청, 상황별 대응 지침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자살·자해에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실시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21.7%가 자살 위험이 큰 집단으로 분류됐다. 학교 청소년(6.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번에 제작한 행동지침은 위기 학

교 밖 청소년이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청소년 도움센터 등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행동 지침은 위기 상황별 대처방법으로 구성돼 긴급, 응급, 준응급의 위기 상황별 대처 방법 및 도움센터 근무자의 대응 방법을 기재하여 빠르고 침착한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긴급·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 절차도 행동지침에 수록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앱 출시

앱 ‘TABА’ 해외카드 결제 지원

서울시는 이달 1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 앱 ‘TABА(타바)’가 정식 출시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우 한국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과 국내 발행 카드 위주의 결제 방식 등 제한적인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타바 앱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인증 가

능하며, 해외 카드 결제도 지원한다.

관광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거리와 요금이 화면에 표출된다. 추천경로·최단경로·통행료 면제 경로 가운데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이 추가된다.

타바 앱 출시를 기념해 첫 번째 이용에 한해 택시 요금의 5%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교대 정시 1744명 선발… 영역별 비율 ‘비슷’

총 13개 대학… 전년비 73명 증가
한국교원대 가군, 나머지는 나군
초등교육과엔 성비 제한 두기도

초등교육과가 개설된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등 총 13개 대학에서 2024학년도 1744명(정원 내)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최근 입영 어려움과 교권 추락 등으로 교대 인기가 낮아지고 있지만, 교대에 확고한 진로희망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는 서울교대에서 41명, 진주교대에서 32명의 선발인원을 늘리면서 전국에서 전년 대비 73명이 증가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인교대로 일반학생 235명, 만학도 25명을 선발한다. 13개 대학 중 한국교원대(45명)만 가군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12개 대학들은 모두 나군에서 선발한다.

교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동일한 비율이 아니더라도 영역 간 반영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단, 서울교대는 영어와 한국사를 점수에 포함하지 않고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해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춘천교대는 영어 반영 비율이 낮아 14.2%만 반영한다.

이화여대가 수학 비중을 기존 25%에서 올해 30%로 높이고 탐구 비중은 기존 25% 올해 20%으로 낮췄다.

일부 대학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가 올해부터 가산점을 폐지했지만, 경인교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는 여전히 수학(미적분/기하)에 3~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대는 이번에 가산점을 새로 도입해 미적분/기하 및 과탐 응시자(2과목 응시자에 한함)에게 각각 5%씩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학별 면접 반영 여부나 비율도 달라 확인해야 한다. 광주교대, 이화여

대, 제주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면접을 치르는 대부분 대학은 단계별 전형 형을 통해 모집정원의 1.5배수 또는 2배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른다. 단, 대구교대, 부산교대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른다.

면접 반영 비율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명목상 반영비율이 높더라도 면접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산교대나 진주교대, 청주교대의 경우 명목상 면접 비율은 20%이지만 실질 반영률은 각각 4.8, 5.9%, 9.1%로 내려간다.

초등교육과의 경우 성비 제한을 두기도 한다. 남·여 한쪽 성별이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년도 경인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에 이어 올해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가 성비 적용 폐지했지만 광주교대(70%), 제주대(70%)는 여전히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이현진 기자 lhj@

파주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등 높은 점수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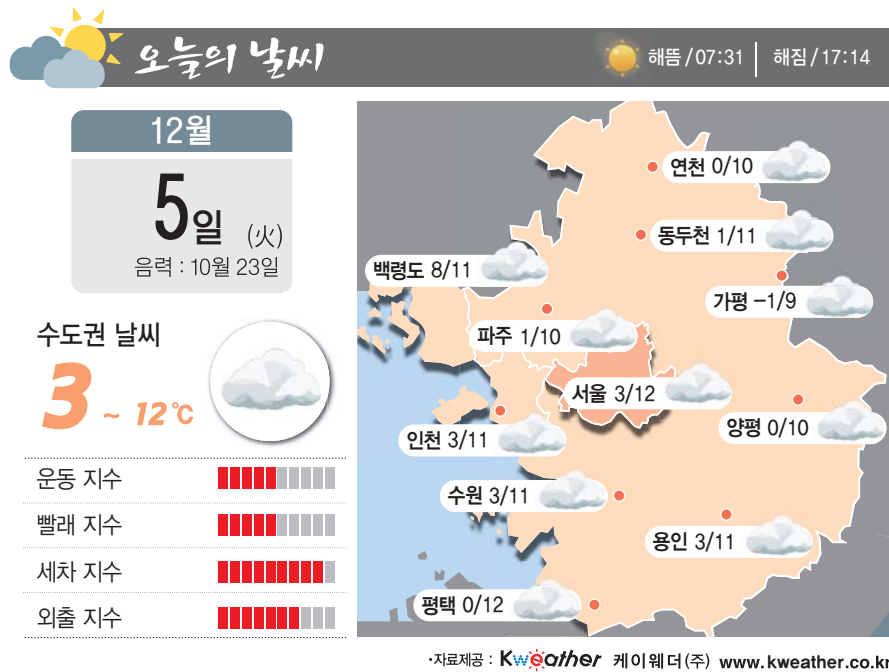
2019년 최우수, 2020년 최우수, 2021년 우수, 2022년 우수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4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특수시책 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파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실적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이행 실적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등 정량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스라엘, 공습 재개... 가자지구서 700명 이상 숨져 /사진 뉴시스
▲중국 신용불량자 845만명... 코로나 19이후 최대

▲백악관 “이스라엘의 하마스 계획 사전 인지, 우린 몰랐다”
▲후티반군, 홍해서 미군함·상선 공격...美 “드론 격추”



▲일본, 과거 통일교 우호단체 수장과 면담 “기억 안나” /사진 뉴시스
▲러시아, 4~5일 발다이 아시아 회의 개최... “다국화 등 논의”